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식 제1권

CONTENTS

차례

도움말

영적 스승이자 예술을 창작하시는 칭하이 무상사는 내재된 영성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은 ‘포모샤’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포모샤’는 섬나라와 그 국민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을 쓰면 그 나라와 국민의 영성이 고양되고 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사랑의 길을 걷다.....	3
	머리말	7
1장	참 진리와 거짓 진리.....	13
2장	초세계의 소리.....	45
3장	초세계의 빛.....	75
4장	‘꽃이 피니 부처를 보다’의 의미	109
5장	지혜안의 신비.....	133
6장	아수라 중생.....	165
7장	깨달음이란.....	203
8장	부처란 무엇인가	235
9장	삼계 이내의 개황	269
10장	채식의 이로움	305
	관음법문 입문과 5계	331
	간행물 안내.....	334
	주요 연락처.....	336

1장

참 진리와 거짓 진리

1986. 10. 20. 포모사 타이베이 무량광 명상센터

법을 널리 전파하려면 우선 이 육신과 자동차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와서 강연을 들을 청중이 있어야 합니다. 청중이 강연을 들으러 와도 때마침 우리 차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차가 움직인다 해도 운전할 사람이 없거나, 운전할 사람이 있고 청중이 있다 해도 스승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파서 강연을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렇죠? 아파도 어김없이 나왔으니 여러분은 알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법을 전파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다 마왕의 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지요.

물질적인 것들이란 무엇일까요? 이 육체, 밥 먹는 것, 물 마시는 것, 우리의 옷 등등 이 모두가 다 마왕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을 전파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이용해 일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법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꼭 집어

뭘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설명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설명을 한다 해도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지요. 진리는 원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강연을 하거나 물질적인 것을 이용해 법을 전파하는 일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대체로 물질적인 것은 이미 너무 조잡한 상태라 지혜의 차원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가령 우리가 지혜 차원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대지혜의 상황을 설명한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첫째로는 그런 빈약한 소재로 무한정한 대지혜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둘째로 듣는 사람 역시 물질적인 수단을 통해 대지혜의 범주 안에 있는 수준 높고 불가사의한 가르침을 듣고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지요. 말하는 나나 듣는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려고 한다면 자신의 불성을 통해 인식하고 체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야’ 하지 말로는 불가능합니다. 찬불가 부르기, 불상에 절하기, 염불이나 법회 같은 것은 다 ABC 초보자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ABC를 듣고 나서는 점점 호기심을 일으켜 더 많이 알려고 하고 자신의 수준을 좀더 높일 생각을 해야지 날이면 날마다 ABC나 외고 있어선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무료해요. 만약 이 점을 이해한다면 마땅히 ‘전심인傳心印(입문이라고도 하는데 글이나 말로 나타낼 수 없는 내면의 깨달음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 받는 것을 말함)’을 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 법문입니다.

법문이라고 해봐야 별것도 아니지만 입문(전심인)만큼은 아주 중요합니다. 입문이 바로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은 의식을 말하는데 바로 이 마음으로 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몇 가지 지침들을 알려주는 것을 가지고 법을 전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건 여전히 표면적인 차원에 속하지요.

법을 전할(입문) 때 나는 여러분에게 '삼가야 할 것'들에 대해 가르쳐 주는데, 그것들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가르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삼가야 나중에 우리의 불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모순처럼 들리나요?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성을 찾을 때 늘 밖으로 외면적인 것들만 좇았기 때문에 우리 단체에 오면 나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외면적인 추구에 대한 집착을 못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생겼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법문은 아닙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진짜 놓을 수 있다면 찰나에 우리는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입문을 하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쉽다고 한 이유는 입문을 할 때 한순간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문을 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입문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깨달음 또한 그리 힘들거나 바랄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해탈은 결코 어렵

지 않아요. 깨닫는 것도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깨달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입문은 수많은 사람에게 해줄 수도 있고 단 한 사람에게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법을 전하는 스승에게 달려 있지요. 그래서 옛 선사들 중에는 겨우 몇 명의 제자만 거둔 분도 있습니다. 노자는 알아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리달마는 5명이었고 혜능 대사는 그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석가모니불은 그보다 훨씬 많았을 테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12명의 수제자들만 있었지요. 아마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 주었겠지만 그 12명의 제자가 가장 크게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속으로 '입문을 한 후 모두 깨닫는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많이 깨닫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깨닫지 못하는 걸까? 또 어떤 사람은 스승을 대신하여 법을 전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걸까?' 하고 자문할 겁니다. 이것은 수행과 관계가 있습니다. 입문을 하자마자 완전히 성불하는 게 아닙니다. 성불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입문한 후 성불한 게 아니라 입문을 하기 전부터 이미 부처였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문을 한 후 조금 깨달을 수는 있지만 곧바로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작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수행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자성을 더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지위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왕자를 예로 들어 봅시다. 그는 어려서 왕궁을 떠났는데 나중에 우연히 만난 거지가 집에 데려다 길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왕자라는 것도 모르고 한술 더 떠 날마다 나가서 구걸까지 했습니다. 매일같이 왕자를 그리워하던 왕은 사람을 풀어 왕자를 찾게 했지요. 아마도 왕자에겐 그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징 같은 것이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파견된 사람이 왕자를 찾게 되자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원래 거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저와 함께 가지지요. 미래의 왕이 되시도록 제가 왕자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거지의 집안에서 자라 이미 거지 생활이 몸에 배인 왕자였기에 대신이 하는 말들을 단박에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날마다 찾아와서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당신이 틀림없는 왕자임을 제가 보증합니다. 증명을 해보이라면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즉시 왕자의 옷도 입혀 드릴 수 있으며, 이 말을 타시겠다고 하면 즉시 태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문제될 게 없지요.”

그러나 거지 습성이 깊이 뱀 왕자는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감히 인정할 만한 용기를 내지 못하고 날마다 극구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은 더한 인내심을 발휘하여 왕궁에는 온갖 금은보화들이 가득하고 눈부시게 화려한 궁전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라며 그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거지 가정에서만 자란 왕자는 자신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득을 하는 대신이 그를 왕자가 되게 할 수는 없었고, 그는 원래부터가 왕자였지요. 그렇게 설득을 하던 어느 날 그 거지는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에게 내 인생과 운명을 맡겨 보겠어요. 당신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두고 보기로 하죠.” 그는 왕자의 옷을 입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부하가 즉시 모여들어 그에게 예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조금 믿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믿는 게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그를 왕궁으로 데려갈 수 있을지 대신에겐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왕궁에 가셔도 거지 왕자가 궁중 법도와 의전을 익혀 궁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는 미친한 거지 생활이 몸에 배어 고개를 들고 사람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이제 왕자가 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므로 왕자다운 풍격과 지혜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것을 배워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래부터 부처였는데 세세생생 마왕의 힘의 지배를 받으며 너무 많은 고통과 번뇌와 업장에 시달리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 속에서 온갖 문제를 떠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나아졌다가도 내일이 되면 또 괴로워졌다가, 모레 조금 좋아졌다가도 그 다음날 다시 또 문제가 터집니다. 매번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유도 제대로 모르지요. 식사량도 많지 않아서 하루에 기껏해야 서너 공기 먹는 게 고작이고 옷도 두세 벌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일이 그리도 많은 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리저리 바빠 다녀도 시간이 부족해서 다 끝내질 못하면서도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스승이나 불보살의 화신이 이 세상에 온다면 그것은 그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는 본래 그의 친구였으므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도 우리 자신의 고귀한 불성을 한순간에 완전히 일깨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본래 고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부처입니다.”와 같은 격려의 말을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 날 동안 말하다 보면 우린 아마 조금은 알아들을 테고, 그러면 그는 다시 인내심을 가지고 알려줄 겁니다. “좋아요. 오세요. 내가 자신의 불성을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자신이 진짜 부처이고 진짜 보살이며 진짜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의 본래면목이 무엇인지 보게 될 거예요.” 서서히 믿음이 깊어지면 입문을 받아들이게 되고 입문을 하고 나서야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조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날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더 많은 얘기를 들려주어 자신의 고귀한 품성을 좀더 많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왕궁으로 돌아가려는 왕자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이곳에서 왕궁까지 가려면 길이 아주 먼데 왕자는 절반쯤 가다가 대뜸 이렇게 말 할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못 믿겠어요. 나는 왕을 보러 갈 수 없어요. 그게 말이 돼요? 나는 거지란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거지로 살아온 내가 어떻게 갑자기 왕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계속 가지 않고 예전의 거지 생활로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2, 30년 동안 날마다 사람들에게 추하기 짝이 없는 거지라고 천대나 받고, 친구도 없고 돌봐 주는 이도 없고 반겨 주는 사람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왕자가 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그를 훈련시켜 고귀한 왕으로 만든다든지 그의 내면의 관념을 단번에 바꾸어 주기란 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거지가 왕이 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랜 옛날부터 대선사들이 세상에 나와 인간을 가르치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은 한결같이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우리의 습관과 싸우고 우리의 집착하는 관념과 욕심각심해야 했습니다. 큰스승이 올 때마다 모든 중생이 달려와 들어주지만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들어도 믿지 않고 돌아가서는 비방을 합니다. 그렇게 비방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관념만을 믿습니니다. 옛날 같았으면 큰스승들이 말하는 진리를 믿기보다는 오히려 불이나 태양·바람신 같은 것을 숭배했겠죠. 이것이 고대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본래면목을 상실한 뒤에 두려웠을 겁니다. 보호의 힘과 단절되는 바람에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모든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태양은 왜 그리 뜨거울까? 어찌하여 물체들이 불에 탈까? 왜 산은 그리 높고 거대하며, 바다는 왜 것처럼 깊고 넓어서 건너편이 보이지 않는 걸까? 바람은 얼마나 강하기에 물체를 파손시키고 거목을 뿌리째 뽑고 집들을 이리저리로 날려 버리는 걸까?’ 하고요. 우리는 바람을 두려워하고 물을 두려워하고 불을 두려워하고 태양 등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현상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신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면목인 전능한 힘과 단절되고 나면 두려움에 떨게 되며 고독해집니다.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가 집을 찾지 못해 엄마아빠, 형제자매와 떨어져 혼자 있게 되면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별력이 없어져서 저급한 귀신이나

신을 모시는 미신에 빠져들게 되죠.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큰스승이 출현하게 되면 그러한 미신적인 관념과의 투쟁이 치열한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관념도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비방을 하거나 미신적인 사람은 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제도해야 합니다. 신심이 있는 사람들은 제도 시키기가 비교적 쉽지요.

미신적인 관념을 바꾸기 위해 충을 들지는 않지만 싸우긴 해야 합니다. 사상적인 싸움은 실제적인 싸움보다 더 치열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중생을 제도하기 어렵다기보다는 두뇌를 제도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이 두뇌는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두뇌는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땐 협조를 잘 하는데 해탈만 하려고 하면 장애물이 되어 반대하고 발목을 잡으며 따집니다. ‘해탈이라니? 여기 생활이 얼마나 좋은데! 먹을 것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남편과 아내도 있잖아. 명상은 해서 뭐 하게? 해탈을 해서 어디로 가려고? 이 세상이 제일 아름다운 곳이야. 위에 다른 경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천당이 진짜 있기는 해? 그런 건 처음부터 없지 않아? 이 스승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건 아냐?’ 두뇌는 이렇게 의심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선사나 유명한 법사들은 제자들에게 아주 많은 시험을 했습니다. 왜 시험을 했을까요? 그건 제자들의 두뇌가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도록 옛 습관을 먼저 깨끗이 씻어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채소를 심을 수 있으니까요. 이는 산에 있는 우리 명상센터의 경우와 같습니다. 우리가 산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아 잡초만 무성하여 길이 보이지 않았지요. 사방이 온통 잡초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자마자 우선 잡초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아 있는 뿌리 때문에 잡초를 제거해도 잡초는 계속해서 자랐지요. 잡초가 너무 커 완전히 잘라낼 수가 없자 우린 천천히 제거하기로 하고 우선 잡초를 짧게 자른 후 그 뿌리를 호미로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잡초가 전부 사라졌지요. 우리는 깨끗한 땅을 마련해서 비료를 준 다음 채소 씨앗을 뿌렸는데 지금은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상 혹은 새로운 진리를 전하려면 먼저 거짓 진리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참 진리와 거짓 진리는 공존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채소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와 함께 채소를 기를 수는 없는 거죠. 잡초가 많으면 걸어나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채소를 심겠어요? 채소를 심고 나서도 벌레가 생기거나 잡초가 자라날지 모르니 날마다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잡초는 땅에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죠. 바람이 어디에선가 잡초의 종자를 날라 와 우리 채소밭에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이틀만 놔둬도 잡초는 금방 자랍니다.

그러므로 입문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하고 매일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거나 선삼禪三·선칠禪七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필수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이 사회에는 거대한 유혹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왕의 힘은 아주 큼니다. 이 세상은 마왕의 세계이거든요. 그의 국가, 그의 영토이지요. 그러므로 불보살이 높은 경지에서 내려오면 자기들 영토에 개입하는 것이 되니 싫어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불보살이 내려오면 그의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원래 마왕의 노예였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지위가 높아진 데다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와 고통을 받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마왕에게 있어서 영혼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해탈하면 그만큼 삼계 이내의 중생이 하나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진정한 스승이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을 제도할 때는 항상 많은 고초를 겪었으며 중생들도 다 제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간의 사람들을 제도한다 해도 수없이 많은 시비를 당하곤 했죠.

신수神秀대사의 제자들 역시 불교인이었고 출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해능대사를 비방하고 해하려 했습니다. 석가모니불이 나왔을 때에도 임신한 것처럼 꾸며 석가모니불을 모함하려 한 사람, 그를 죽이려 든 사람, 외도니 내도니 하며 시비를 건 사람 등 방해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온 지 몇 년도 안 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공자는 위衛나라에 의해 그의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노자는 아무도 믿어 주지 않았습니니다. 있다 해도 극히 소수였지요. 오늘날 노자는 2,000년 전보다 유명하지만 그가 살아 있을 때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고 죽은 후에야 유명해졌습니다.

왜 옛 스승들이 오늘날의 스승보다 더 유명할까요? 깨달은 스

승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즉시 마왕이 스승의 이름을 이용해 일을 벌이면서 큰스승의 진리를 마왕의 사된 진리로 바꿔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깨달은 스승이 이 세상에 와서 하신 이야기는 오직 진리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미신적으로 변해 가지요.

예를 들면 노자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하고 공양물을 바치거나 살생 공양을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가피를 내릴 것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을 기리고 공양을 바치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도덕경』은 단지 ‘도道’를 찾아야 한다고, ‘도’와 교류하며 ‘도’와 함께해야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가 『도덕경』에서 말하고자 한 주요 요지로서 아주 훌륭한 진리요, 탁월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도교를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었는지 압니까? 모든 도교 사원에서는 돼지를 죽이고, 소를 죽이고, 닭을 죽입니다. 누구에게 공양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겁을 먹은 노자는 이미 오래전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깨달은 스승이었던 노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기를 먹고 싶어하겠어요? 유교 사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유학자가 되려는 사람은 마땅히 도와 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유교 사당에서는 제사 때마다 가축을 죽여 수많은 소와 고기를 공양물로 바칩니다.

불교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교가 소승불교로 전락했습니다. 많은 나라의 출가자들이 육식을 하고

결혼도 제법 합니다. 말법시대에는 막행막식이 성행하는 법입니다.

중국은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진 국가로서 문화와 도덕 수준이 상당히 높았는데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자 아주 훌륭하게 발전했습니다. 비록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긴 했어도 그 가운데에서 찬란한 꽃을 피웠지요. 하지만 중국에 가서는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작은 고구마(포모사)만이 진정한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여 출가를 하면 결혼할 수 없게 하고, 육식도 금하고 술도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포모사에서조차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불교 전통을 지키는 나라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러나 포모사에도 진정한 불교는 없습니다. 불교와 도교가 결합된 관계로 아주 복잡하게 변해 버렸습니다. 예전의 인도 불교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는 전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곳에서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는 것이 당연시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염불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읊어야 하죠. 그것을 굳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는 것은 원래 청정하게 수행하는 출가자들의 몫입니다.

어울락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재가자는 능엄주를 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준제주準提呪나 다른 주문들도 재가자는 절대로 읊지 못하게 했지요. 나는 출가하기 전부터 이미 채식을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매일 염불하고 절하고 경전을 보았지요. 하지만 그 당시 나의 스승님은 능엄주를 읊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는 것도 못 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는 것을 허락해 주었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재가자는 부부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고, 둘째는 집과 절의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주문을 외도 영적인 감응이 없다. 게다가 많은 이롭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왜냐하면 재가자는 충분히 정화되어 있지 않아서 주문을 외도 영적인 감응을 얻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여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아주 제멋대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석가모니나 다른 부처의 조각상을 사다가 집에 모셔 놓고 날마다 절하고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으며 부적물(符水) 같은 것을 만들어 (무형의) 중생들에게 공양하는데 첫째로 (무형의) 중생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된다면 그후로는 날마다 찾아와서 먹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귀신들을 우리 주변으로 끌어들게 되어 강한 음의 기운이 조성되고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그들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읊고 나면 정신이 불안정해지다 정신병에 걸리고 마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데 때론 도와주기도 하지만 때론 그냥 내버려둡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내겐 그런 일에 일일이 관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청하여 남의 일에 개입하고 자청하여 대보살이 되어 사람들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도 직접 자신이 구하면 되겠지요. 나는 그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죠. 그런 사람을 구해 주려면 아주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 힘을 아꼈다가 평범한 사람들을 더 많이 구해 그들을 좀더 빨리 해탈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한 사람 구하려고 백

사람을 놓는다면 힘을 낭비하는 것이고 불공평한 일이죠.

포모사에는 그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아침에 읽는 주문, 저녁에 읽는 주문을 집에 가져가서 혼자 마구 읽다가 끝나면 또 아귀들을 제도할 수 있을 줄 알고 무슨 무드라인지를 배우러 갑니다. 아니면 불칠佛七(7일간 염불하는 것)에 참가했다 집에 와서 그대로 따라한다거나 선칠禪七에 참가했다 돌아와서 그대로 배운다거나 2, 3일 절에 가서 절을 한 후 껍데기만 배우고 와서는 법사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절의 분위기는 집의 분위기와는 달라서 집에서 하려면 자신에게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영가를 불러들여 공양을 하려면 여러분의 정신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그들을 제압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포모사에는 중생을 천도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중생을 천도해야 한다는 소리를 꼭 듣게 됩니다. 중생을 천도한다는 뜻은 좋지만 천도가 되고 안 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법보단경』이나 『금강경』을 사서 집에서 읽다가 정전에서 명상을 하면 좋다는 부분을 발견하고는 급기야 자기도 명상을 배웁니다. 절에 가서 출가자들이 명상하는 모습을 보고 집에 가서 그대로 따라하지요. 그렇게 해서 무슨 명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대로 된 명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잘못된’ 명상입니다. 명상을 ‘잘못’하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엉뚱한 길로 새게 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명상을 배우다 미치곤 하는데 그 이유는 명상법이 지나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해도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습니다. 지나친 공개로 사람들이 혼자서 배우다

가 수습이 안 된다면 그건 그들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옛날 큰스승들은 법을 전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먼저 ‘준 제자’에게 많은 시험을 주고 장기간 자세히 관찰한 뒤 법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제자 역시 밖에 나가 함부로 비판하는 일이 없었지요.

중생 천도 주문을 외면 두 종류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는 주문을 오랜 기간 외고 나서 정신병자가 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주문을 외더라도 평소대로 정상인 경우입니다. 정신병에 걸리는 경우는 복이 없고 에고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나’는 아주 훌륭하다, ‘나’는 아주 자비심이 많다, ‘나’는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나’는 주문을 외어 중생을 천도할 수 있다, ‘나’는 매일 보시를 해서 아귀에게 먹을 걸 준다고 생각하니, 에고가 커져 버려 ‘나’라는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문을 읊고 나서 자신이 남보다 등급이 높아졌다고 자만하게 된다면 곧 마장이 치고 들어오지요. 본래 마왕은 좋지 않은 힘에 속합니다만 그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서 그들의 두뇌를 교란시키려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죽을 때까지 주문을 읊어도 결코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전생에 수행을 열심히 한 덕에 복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행이 부족해서 현세에 다시 와 남편과 아내 등 여전히 세상에 묶여 지내고 있죠. 그렇긴 해도 그런 사람은 전생의 복과 수행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비심을 내어 사람들을 제도하고자 하고, 교만한 태

도 없이 마음속 깊이 진정 아귀에게 보시하고자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어 죽은 영가를 천도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그가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마왕도 건드리지 않고 불보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하지 않고 천도만 해서 전생의 공덕을 다 까먹어 버린다면 나중에 죽을 때가 되어서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겠지요. 어쩌면 저 아래 낮은 차원의 태배 속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생에서는 별 탈이 없었다 해도 어쨌든 공덕을 다 까먹어 버렸으니까요. 우린 볼 수 없다 보니 그런 상황을 알 수 없어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상황으로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돈도 많지 않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부자로 보이려고 날마다 돈을 빌려서 펄펄 쓰고 다닐 뿐 아니라 유명해지고 싶은 나머지 불우한 사람들에게까지 나눠 주다가 너무 많이 줘 버린 바람에 갚을 돈이 없어 철창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직업은 없지만 진심으로 불우한 사람을 돕고 싶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날마다 조금씩 쓰다가 나중에 무일푼이 되어 버리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복도 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무량무변의 공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무량무변의 공덕을 쌓으려면 무량무변의 복을 기본으로 갖춰야 하고, 또 어떻게 무량무변의 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은 후에는 얼마든지 퍼 줘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찾기 전에는 위험하므로 함부로 퍼 줘선 안 됩니다.

이 무량무변의 복은 그 근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원천을 찾게 되거나 그 원천과 서로 통하게 된다면 우린 모든 것을 두루 갖추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이 무량무변한 복의 원천을 찾게 되면 자신을 해치지 않고도 그 복을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큰 복의 원천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송경이나 법회를 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염불이나 목탁 두드리는 일들은 그에게 필요치가 않지요. 그것은 석가모니불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마왕이 시킨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주문을 읊는단 말입니까? 원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불교가 다른 미신적인 신앙과 결합한 이후에 오늘날의 이런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 전해진 불교와 마찬가지로 이미 순수성을 상실했지요.

그러므로 진짜 불교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며, 진짜 본래 면목을 찾게 된 사람도 그런 일을 하러 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혜능대사가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었다든가 천도재를 지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보리달마의 행적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는 오직 면벽참선만 했습니다. 백장선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무슨 송경 법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나 역시 석가모니불이 아침저녁으로 주문을 읊었다거나 그 밖의 의식을 주관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불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에겐 그럴 만한 힘이

있으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하죠. 아직 성불도 못 했는데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부처도 원래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곳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로선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주문을 읊을 필요가 없었지요. 읊어야 할 때는 늘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의 힘이나 화신을 이용하여 했기 때문에 석가모니불을 천백억 화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털어놓자면 나는 어디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자신을 대신해 일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돕는 것을 보곤 하죠. 그건 내가 진짜로 산을 내려가서 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난 여기에 와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진짜 내가 와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를 때린다면 난 아프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이 육신이 아닌 화신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본래면목을 찾았을 땐, 즉 우리가 말하는 ‘도를 이룬’ 후엔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진짜 중생을 제도하지만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는 생각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된 중생이 없으니까요. 그때는 근본적으로 나와 중생이라는 분별심이 없으며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자가 “위무위爲無爲”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건 바로 ‘함이 없이 하고 행함 없이 행한다.’라는 뜻이지요.

조금 아까 내가 진정한 큰스승이 왕생하고 나면 살아 있을 때보다 더 유명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왕이 스승의 이름을 이

용해 파괴 공작을 펴기 때문입니다. 거짓 진리를 끼워 넣어 하나의 종교로 탈바꿈시켜 놓고는 중생들에게 그런 것이 바로 불교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그 결과 생사윤회를 계속하고 끝까지 마왕의 백성으로 남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위안 삼을 종교를 줌으로써 진리에 대한 우리의 갈망에 ‘아침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으려 해도 방법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처에게 절을 하면 해탈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면 모두들 그 소리를 듣고 아주 기뻐하지요. 석가모니불은 비록 2,000여 년 전에 죽었지만 아직도 유명하니 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하러 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해탈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마왕의 계략입니다. 그는 우리가 내면의 진정한 부처를 찾기를 바라지 않고 항상 외면의 부처를 좇아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문을 읊는다, 나는 수행을 정말 잘한다며 자신이 도심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위안을 얻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다 마왕의 계략이고 삼계 이내의 것이라는 것을 우린 인식하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1천만억 년이 흘러도 해탈할 수 없을 겁니다.

아주 복이 많고 참되고 성실한 사람이라 해도 제2세계 이상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제3세계에도 오르지 못하니 삼계 너머는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요. 제2세계는 아직 마왕의 나라입니다. 제3세계